

반도체, 수출액 600억달러 달성

2014년 615억달러로 7.6% 확대 ... 메모리 가격 안정화 영향

2014년 반도체 수출액이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반도체 수출이 6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12월19일 발표했다.

2014년 반도체 수출은 615억달러로 2013년에 비해 7.6% 증가하고, 2015년에는 4.4% 확대된 642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10년 수출 1위를 차지한 반도체는 2011년 선박, 2012년 석유제품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2013년 다시 1위를 되찾은데 이어 2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했다.

반도체는 1994년 수출 106억4000만달러로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0년 200억달러, 2006년 3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2010년엔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 600억달러는 2013년 전체 수출 세계 54위인 포르투갈의 629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산업부는 메모리 시장 과점화와 모바일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가격의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돼 수출이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D램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36.1%, SK하이닉스 27.3%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Micron은 21.8%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웨어러블(Wearable), 전력반도체 등 신규수요를 발굴하고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첨단센서 개발 등을 통해 관련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19>